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우자조금

2023년 4월호 Vol.210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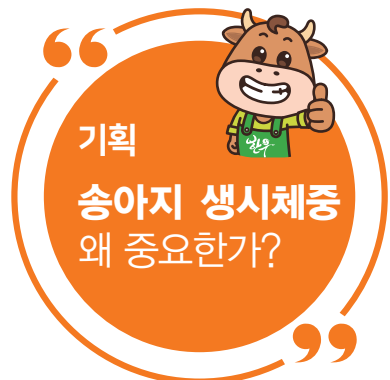
한우 파동 극복 위한 우량 송아지 생산·관리 방안

선도농가 탐방

**“미래는 준비된 자만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한우사육 임해”**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관리 요령





표지이야기

김경숙 백상농장 대표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암소개량에 힘써 왔으며 2010년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됐다. 이제는 정예화된 암소를 바탕으로 생산한 송아지 평균 생시체중이 34kg 내외이며, 거세우 출하성적도 1"이상 출현율이 95%를 상회한다.

2023년 4월호 통권 제210호

발행일 2023년 4월 14일

발행인 이동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케피아회관 3층 유통부

전화 02-522-3606 팩스 02-522-3605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08



04 기획

송아지 생시체중 왜 중요한가?

한우 파동 극복 위한 우량 송아지 생산·관리 방안

08 선도농가 탐방

“미래는 준비된 자만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한우사육 임해”

경북 문경 ‘백상농장’

12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관리 요령

14 포커스

2023년 3월호 한우 관측동향

16 이달의 소식

- ❶ '제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제5기 전·후반기 임원 이임·출범식 행사,
한우 소비 활성화 및 가격안정 자문 간담회 개최
- ❷ 2023년 한우산업의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고견을 묻다
- ❸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개최
- ❹ 정부·한우농가·유통업체·소비자,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위해 '맞손'
- ❺ 저렴한 가격 판매업체 홍보 통해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 ❻ 2023년 한우자조금 TV광고 촬영 현장

24 한우고기 유통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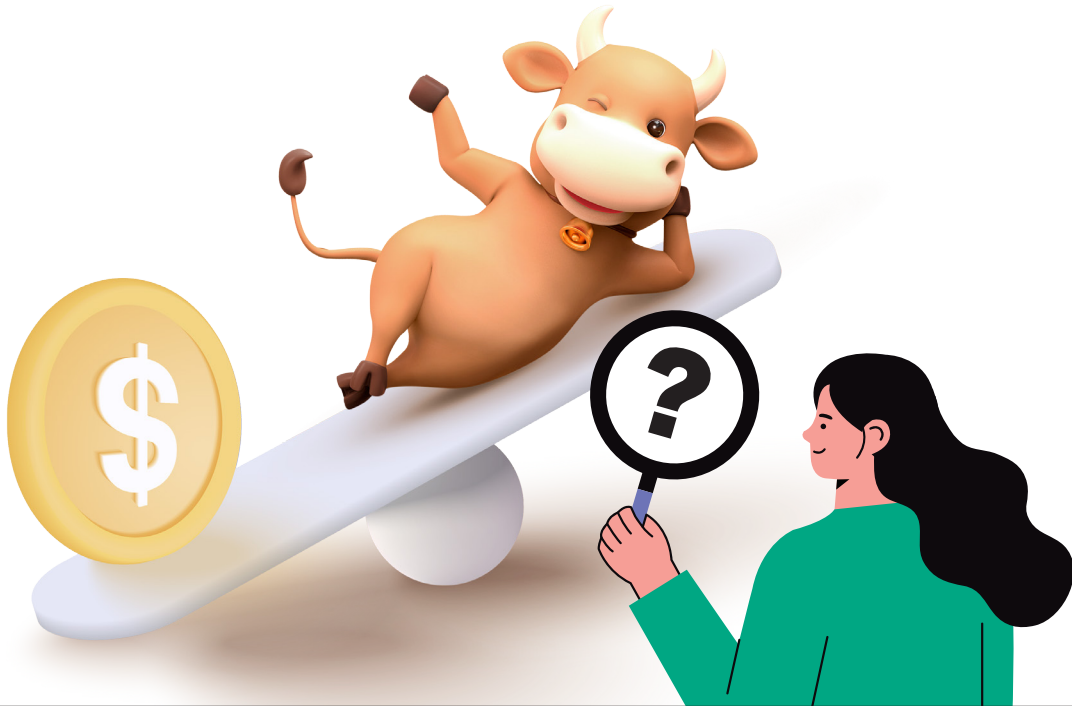
25 한우 수급시황

2023년 3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26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우리 한우

27 독자마당





송아지 생시체중 왜 중요한가?

최근 한우산업 현장을 둘러보면, 치솟은 사료가격과 각종 축산기자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 부담으로 인해 '한우사육을 지속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농가들이 많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이 겹치면서 올해 들어 한우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육농가는 육질등급과 도체중을 향상시키고, 번식농가는 송아지 폐사율을 최소화해 농장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송아지 생시체중이 매우 중요하다. 생시체중이 높을수록 송아지가 강건하기 때문에 어린송아지 시기에 질병을 비교적 쉽게 이겨내고, 출하시 도체중과 등심단면적 성적도 월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가 기고를 통해 송아지 생시체중의 중요성과 높일 수 있는 사양관리 요령에 대해 살펴봤다.





이 상 무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한우 파동 극복 위한 우량 송아지 생산·관리 방안

시장흐름·소비자 니즈 맞춰 한우사육 임해야

한우산업은 대략 10~12년 주기를 갖고 한우 파동을 겪고 있다. 지나간 한우 파동을 살펴보면 1974년(177만두), 1985년(255만두), 1996년(284만두), 2010년(292만두)에 한우 파동을 겪었다. 그리고 2023년 현재(352만두) 한우 파동에 직면하고 있다. 한우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농산물이 그러하듯이 소비보다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폭락해 파동을 겪는 것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은 '풍요 속에 빈곤, 빈곤 속에 풍요'라는 말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두수가 적으면 가격은 상승한다는 말이다.

평년 1월 거세우 한우 kg당 도매가격은 2만85원 정도였으며 지난해 1월에는 2만1,129원이었던 것이 올해 1월에는 1만7,672원으로서 평년대비 12.0% 하락했으며 전년대비 16.4% 하락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들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간 한우농가에게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은 시장흐름과 소비자 니즈 따라 한우를 사육하는 것이 한우 파동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해 **가격이 폭락한 경우에는 육질등급 간에 가격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고급육 생산(육질) 위주의 사양관리에 포인트를 맞추고 2차적으로 육량 증가에 무게를 뒀야 한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가격이 폭등할 때는 육질등**



급 간에 가격 차이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육량위주로 하고 2차적으로 육질에 신경 써 사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배추 농사가 풍년이 되어 생산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면 농부들은 뚝뚝하고 상품가치가 높은 배추는 수확해 팔지만 상품가치가 낮은 배추는 헐값에 팔거나 갈아엎어 버린다. 그러나 배추 농사가 흉년이 되어 생산량이 매우 저조하다면 밭에 있는 배추는 품질을 따질 필요 없이 모두 수확해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한우 생산량도 배추 농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우 파동으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가가 있는 반면, 선도농가에서는 뚝뚝하고 품질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 사육한 결과 출하가격이 평균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을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출하가격을 더 많이 받는 농가들도 많이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안정적인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상의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이다.

〈표 1〉 생시체중과 비육성적과의 관련성(일본 화우)

생시체중	출하체중	도체중량	근내지방도(1~12)
작은 그룹(35kg 이하) (A)	771.8kg	512.4kg	9.42
큰 그룹(36kg 이상) (B)	823.2kg	542.5kg	10.27
B-A	51.4kg	30.1kg	0.85

출처 : 일본 축산 HP, 2021. 생시체중과 비육성적과의 관계성

생시체중 높을수록 도체중·등심단면적 커

국내 한우 및 일본 화우에 있어서도 생시체중이 큰 것이 작은 것에 비해 출하 체중이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크게 태어난 송아지가 크게 된다’는 것은 우리 한우농가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화우를 대상으로 생시체중이 작은 그룹과 큰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실시한 결과, 생시체중이 큰 송아지가 출하체중 및 도체중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내지방도에 있어서는 생시체중이 큰 것이 약간 높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내 연구(송, 2022)에서는 한우 거세우 1,907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체중이 높을수록 등심단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생시체중이 큰 것이 작은 것에 비하여 도체중량은 높고, 등심단면적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체중량이 높고, 등심단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경매단가가 높아지고 농가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이유시 체중에 1일 산유량이 크게 영향 끼쳐

성장형질로서 이유시 체중은 암소의 산차, 임신기간과 같은 번식 형질과 연관성이 깊다. 특히 이유시 체중은 성성숙, 일당증체량에도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우량 송아지를 선발할 때 이를 지표로 활용한다면 한우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다.



이유시 체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미 소의 높은 1일 산유량이다. 일일 어미 소 산유량은 생시체중, 3개월령 체중 및 포유기 일당 증체량에 대한 모체(어미 소)효과들과의 유전 상관계수가 각각 0.59, 0.79 및 0.68이다. 즉 일일 산유량은 3개월령 체중이나 포유기 일당 증체량에 대해 모체 효과 간 높은 유전력이 있다(황 등, 2008)는 결과로 볼 때 산유량이 높은 암소들을 사육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우 송아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전국 송아지 경매시장 동향을 보면 최고가의 경우 우량 수송아지는 490만원 정도, 우량 암송아지는 410만원에 경매되고 있다. 따라서 한우농가들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통해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어려운 한우산업 속에서도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가치가 높은 한우를 출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생사·이유체중 높은 우량 송아지 생산 위한 방안

- 유전적으로 초유가 풍부하고 유질이 좋은 조건을 가진 어미 소를 선발해 사육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 한우 씨수소(정액) 선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내지방도, 등심단면적, 도체중이 높은 정액을 선발해 수정하는 것이 좋다.
※현재처럼 한우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는 근내지방도가 높은 정액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유·난산 및 조산 등으로 위축된 송아지 생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미 소가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
※송아지 생산 및 수태율 저하에 가장 큰 문제는 어미 소의 운동 부족이다.
- 임신 말기(임신 8·9·10개월) 어미 소에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고 종합 비타민제를 첨가 급여해 유·사산, 후산정체를 방지해야 하며 내병성을 향상시켜 태아성장을 촉진시킨다.
- 송아지 출생 후 3시간 이내에 초유 섭취를 유도하고 모축으로부터 생후 3일 동안 1일 5~6회 이상 매일 10분 정도 초유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사양관리한다.
- 생산된 송아지는 설사, 페럼백신 접종 그리고 구충제를 투여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 문경 ‘백상농장’

“미래는 준비된 자만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한우사육 임해”

2010년 한우육종농가 선정...주워서 번식전문가로 통해
개량 통해 우량 밀소 확보...거세우 1*이상 출현율 95%
경북대 축산학과 박사 과정...이론 적용으로 시너지효과

한우 2마리에서 600두 농장으로 일귀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 암소 330두, 육성우 168두, 거세우 132두 등 총 한우 600두를 일관사육하고 있는 김경숙 백상농장 대표는 지역 내에서 손꼽히는 개량농가이자 사양관리 선도농가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989년 한우 번식우 2마리를 시부모님으로부터 결혼선물로 받으면서 한우와 인연을 맺게 된 김 대표는 과거 번식농가에서 비육농가로 전환한 적도 있었지만, 우량 밀소를 바탕으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체개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량에 매진해왔다.

특히 김 대표는 ‘미래는 준비된 자만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지역 개량농가동호회에 참여해 암소개량에 대해 공부하고, 2010년에는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되며 더욱 체계적인 개량에 임하고 있다.

암소 능력에 맞는 맞춤형 정액 사용

김 대표의 암소개량 노하우를 살펴보면,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제공하는 한우계획교배프로그램과 농협중앙회에서 한우육종농가에게 제공하는 개체관



▲ 김경숙 대표.



▲ 김 대표가 송아지에게 대용유를 급여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액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1그룹 정액보다 암소의 능력에 맞는 정액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의 능력을 기록하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항상 세세하게 관찰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지를 통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면서 “소를 관찰해 기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그 기록지를 항상 들여다보면서 농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지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기록일지에는 발정·수정·분만시간, 재발정 여부, 송아지 생시체중, 기타 특이사항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거세우의 경우에는 출하 후 도축성적을 검색해 그 어미 소의 선발과 도태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암소를 도태할 때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만 유전

능력이 좋지 못한 소가 계속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농장 전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량속도도 더더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능력이 좋은 암소는 9~10산차까지도 사육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5~7산차에 도태시키고 있다.”

송아지 평균 생시체중 34kg 내외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번식우로서의 체형은 BCS 3.2가 가장 좋다고 했다. 번식우가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상태에서 송아지를 임신하면 태아와 어미 소 모두 영양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김 대표는 “어미 소의 체격이 작으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어미 소가 섭취한 영양소를 자신의 부족한 영양상태를 채우기 위해 태아에게 공급하지 않아 조기배사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암소가 너무 마르지 않게 사양관리를 해줘야 후대축이 우량하고, 강건하게 태어난다”고 말했다.

개량을 통해 정예화된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평균 생시체중은 34kg 내외라는 김 대표는 이 우량 수송아지를 매년 약 70~80여두를 출하해 1*이상 출현율이 95%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송아지 폐사율 1% 미만

“최근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농장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0년 한우육종농가에 선정되기 전엔 연간 생산한 송아지의 5~10% 정도가 폐사했지만, 사양관리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금은 송아지 폐사율이 유·사산 합쳐 채 1%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송아지 폐사율을 최소화하려면 설사나 호흡기 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미 소부터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이에 어미 소에게 분만 6·4주전 바이러스성·대장균 설사 백신과 BVD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송아지가 갓 태어나면 우사 바닥을 청소해줘도 분노가 남아있고, 바이러스도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 소독을 1순위로 실시하고 있다. 또 송아지가 빠르게 기립해 어미 소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초유성분의 대용유를 정량의 약 3분의 1만 급여해준다. 이는 정량을 급여할 시 송아지가 배불러 어미 소의 초유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허약한 송아지의 경우에는 대용유를 정량 급여하고 있다. 아울러 분만지연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상태에 따라 거담제나 강심제를 접종해주고 있으며, 생후 15일령에서 20일령 사이에는 미네랄제와 비타민제, 콕시듐제를 접종해준다.



▲ 조사료를 급여하며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김 대표.

이밖에도 김 대표는 번식우의 주간분만 확률을 높이고자 암송아지의 경우 육성기부터 점차적으로 저녁에만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사양관리를 통해 번식 집단의 분만시간을 일괄적으로 통일시켜 송아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수의 축산 관련 자격증 취득

만학도인 김 대표는 2012년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입학해 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2014년 경북대학교 축산학과에 편입해 2016년 졸업했다. 이후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축산학과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해 2019년 학위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특히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가축인공수정사, 식육처리기능사, 유기농기능사 등 웬만한 축산 관련 자격증은 전부 취득했으며, 이제는 ‘한우 마이스터’에 도전하고 있다.



▲ 김 대표는 축분 건조, 환기 등을 위해 우사 지붕을 개폐식으로 설계했다.



▲ 김 대표가 정성을 들여 사육하고 있는 한우.

“늦은 나이에 축산 공부를 시작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현장과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 농장에 적용했더니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할 것이다.”

■ 번식우 관리

- BCS 3.2 정도 유지되도록 사양관리
- 주간분만 위해 저녁에만 배합사료 급여
- 분만 6·4주전 바이러스성·대장균 설사 백신 및 BVD 예방 백신 접종

■ 신생송아지 관리

- 송아지 갓 태어나면 제대 소독 1순위로 실시
- 초유성분의 대용유 정량의 약 3분의 1 급여. 다만 허약 송아지는 대용유 정량 급여
- 분만지연 시 송아지 상태에 따라 거담제나 강심제 접종
- 생후 15일령에서 20일령 사이 미네랄제, 비타민제, 콕시듐제 접종

■ 개량 노하우

- 1그룹 정액보다 암소 능력에 맞는 정액 선정
- 암소 능력 파악 위해 발정·수정·분만시간, 재발정 여부, 송아지 생시체중, 기타 특이사항 등 빠짐없이 기록
- 어미 소 선발과 도태에 중요한 근거로 삼기 위해 거세우는 출하 후 도축성적 검색
- 유전능력 좋지 않은 암소 과감히 도태. 반면 능력이 뛰어난 암소는 9~10산차까지 사육



백상농장 사양관리 ‘꿀팁’



▼ 백상농장 전경.



※ 농장별로 사양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양관리 ‘꿀팁’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세요.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관리 요령



김은주 수의연구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은 소 코로나바이러스, 소 로타바이러스와 같이 설사병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 질병 중 하나다. 질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증상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설사지만 호흡기 증상을 비롯해 번식장애·면역저하·중추신경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급·만성 질병이다.

특히 송아지의 높은 폐사율, 감염우의 반복적인 유·사산, 성장지연, 허약 등 농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힌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국내 발생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 정도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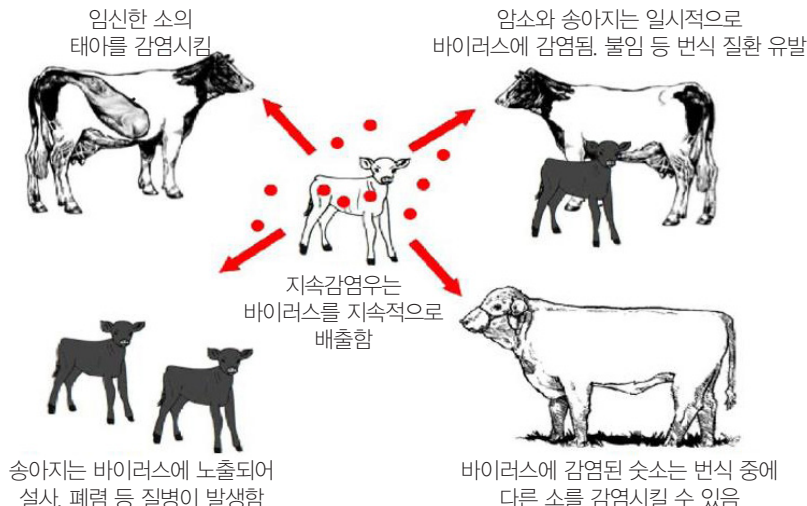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은 전 세계적으로 소 산업에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질병이다. 유럽에서는 이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다방면의 방역 정책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주로 송아지 때 나타나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으로 인해 한우농가가 입는 피해는 주로 송아지 시기에 나타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최소 1천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은 효과적인 치료약물이 없다. 일반적으로 설사로 인한 탈수를 보정하고, 2차적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 대증 방법을 사용해 환축을 관리한다. 그러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바이

〈그림 1〉 지속감염우의 바이러스 배출



출처 : Khodakaram-Tafati et al., 2017. Persistent bovine viral diarrhea virus (BVDV) infection in cattle herds

러스의 전파 속도보다 늦기 때문에 농가에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돌기 시작하면 환축 관리 및 치료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다.

특히 임신 초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태아가 면역관용 상태가 되면 태어난 송아지는 지속감염우가 되어 농장을 오염시킨다. 지속감염우는 일시적인 감염우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농가 전체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관리 요령]

• 격리

질병 증상이 있는 환축, 보균동물 등 이미 감염돼 있는 가축과 아직 감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가축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가 필요하다. 이에 구획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속감염우 색출 및 도태

임상증상은 없으면서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소를 지속감염우라고 한다. 지속감염우는 일생 동안 바이러스를 지속 배출하며 농장을 오염시킨다.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를 찾으려면 1차적으로 소의 혈액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양성 개체에 대해 3~4주 후 재검사를 시행하여 항원의 역가가 감소되지 않은 소는 지속감염우로 확진한다. 지속감염우는 최대한 빨리 도축장으로 출하해 감염원을 제거해야 추가적 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 새로 입식하는 소에서도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검사를 실시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 백신접종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은 임신우와 송아지에 적용한다. 분만 전 임신우에 2~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분만 전 임신우에 백신을 접종하

면 임신우 몸 안에서 백신접종 항체가 만들어지고 분만 후 초유와 함께 분비된다.

분만 후 첫 번째 착유하는 유즙에 면역항체가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송아지가 출생한 후 6시간 이내에 반드시 어미의 초유를 먹어야 한다.

어미 초유의 항체가 소실되는 생후 2~3개월령에 1차 접종하고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그 후 6개월 내지 1년 간격으로 매년 보강접종을 실시해 질병의 감염을 예방한다.

• 차단 방역

차단방역은 외부의 병원체가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농장내부로의 전파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질병관리 방법이다. 농장에서 사용되거나 농장 안으로 유입되는 기계 및 기구, 운송 차량 등은 반드시 출입 전·후 소독한다.

농장 방문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농장 출입 전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하도록 한다.

• 환경 및 위생 관리

분만우사와 송아지 우사의 환경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송아지를 분만하는 분만실과 송아지 우사는 송아지가 처음 세상에 나와서 병원성 미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만 예정우가 들어가기 전 꼭 오염된 분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

2023년 3월호 한우 관측동향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3월호 한우 관측정보에 따르면 3월과 6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86만9천 마리) 대비 8.5% 증가한 94만 마리 내외로 예상했다.



수급동향 및 전망

사육 마릿수 동향

2022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 한우 : 352만8천 마리(전년 대비 3.3% 증가)
- 한우 가임암소 : 169만3천 마리(전년 대비 3.8% 증가)



사육 마릿수 전망

2023년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2023년 3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47만6천 마리(전년 대비 2.7% 증가) 전망
 - 가임암소 165만9천 마리(3.0% 증가), 1세 미만 100만7천 마리(0.3% 감소)
- 2023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57만 마리(전년 대비 0.5% 증가) 전망
 - 가임암소 172만7천 마리(1.8% 증가), 1세 미만 99만6천 마리(2.9% 감소)

※ 암소비육지원사업 약정 이행 및 농가의 자율적 수급 조절 상황에 따라 사육 마릿수 정점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



도축 마릿수 동향

2022년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 한우 도축 마릿수 : 86만9천 마리(전년 대비 9.4% 증가)
 - 수소(거세우 포함) 전년 대비 5.0%, 암소 14.8% 증가
- 2023년 1~2월 한우 도축 마릿수 : 15만3천 마리(전년 대비 9.5% 증가)

도축 마릿수 전망

2023년 한우 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9% 증가 전망

- 2023년 1분기 : 22만3천 마리(전년 대비 9.2% 증가)
 - 2023년 2분기 이후 : 22만~26만 마리(전년 대비 4~12% 증가)
- 도축 가능 개체 수 및 가격 하락으로 암소 도축 늘어 도축 마릿수 증가 전망
- ※ 암소비육지원사업에 따라 도축 물량 변경 가능성

송아지 생산 마릿수

2022년 송아지 생산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 송아지 출생 신고 마릿수 : 107만3천 마리(전년 대비 0.5%, 평년 대비 11.3% 증가)
- 2021~2022년 가격 호조로 인한 정액 판매량 증가, 암소 도태 지연 영향

소고기 수입량

2023년 1~2월 소고기 수입량 전년 대비 감소

- 2023년 1~2월 누적 소고기 수입량 : 7만톤(전년 동기간 대비 3.8% 감소)
- 냉장 수입량 : 1만5,404톤(전년 동기간 대비 9.2% 감소)
- 2023년 2월 수입 단가 : 7,3달러/kg(전년 대비 21.1% 하락)

가격동향 및 전망

한우 도매가격 동향

도축 마릿수 증가 및 소비 위축으로 한우 도매가격 하락

- 1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 1만7,672원/kg(전년 대비 16.4% 하락)
- 2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 1만8,353원/kg(전년 대비 11.2% 하락)
- 수요 촉진 행사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



한우 도매가격 전망

2023년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20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 및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 전망
- 20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출하 대기 물량 증가, 번식의향 감소로 암소 도축이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한 원활한 정부 정책 추진시 전망치보다 상회 가능성

송아지 산지가격

1월 한우 송아지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

- 경영비 상승 및 한우 도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송아지 입식 의향 감소
- 한우 암송아지 1월 산지가격(6~7개월령) : 195만원(전년 대비 31.9%, 평년 대비 36.9% 하락)
- ※(평년) 309만원, (2022) 286만원, (2023) 195만원
- 수송아지 1월 산지가격(6~7개월령) : 282만원(전년 대비 26.6%, 평년 대비 26.1% 하락)
- ※(평년) 381만원, (2022) 384만원, (2023) 282만원



배합사료

고기소 배합사료 가격 2022년 11월 정점 이후 하락세

- 고기소 배합사료 가격 : ('22.11) 614원/kg, ('22.12) 607원/kg, ('23.1) 595원/kg
- 2023년 1월 배합사료 생산 실적 : 48만1천 톤(전년 대비 1.7% 증가)
- ※2011~2013년 도축 마릿수 증가 등으로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료 가격도 함께 상승함에 따라 농가 수익성 악화 유발

‘제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제5기 전·후반기 임원 이임·출범식 행사, 한우 소비 활성화 및 가격안정 자문 간담회 개최

부위원장예 김대중 관리위원·김정일 관리위원 선출
이동할 위원장 “한우산업 안정화 견인” 약속



지난 4월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은 한우자조금 부위원장 선출 건으로, 부위원장으로는 관리위원들이 추천한 김대중 관리위원과 김정일 관리위원이 선출됐다.



▲ 제5기 후반기 한우자조금을 이끌어 갈 (왼쪽부터)이동할 관리위원장, 대의원회 정인철 의장, 민민호 부의장, 강종덕 감사·이충식 감사, 김대중 부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이어 이날 한우자조금은 제5기 후반기 임원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한우자조금 제5기 전·후반기 임원 이임·출범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우자조금 현직 관리위원을 비롯

한 제5기 전·후반기 임원, 한우산업 원로 임원, 학계, 언론, 유관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임 임원에 대한 재직 기념패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패 전달, 이임사, 신임 임원 소개 및 취임사, 자조금기 전수,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기를 마친 민경천 전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이동할 위원장이 자조금 설립 목적에 맞게 자조금을 잘 운영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한우자조금 수장으로 취임한 이동할 위원장은 “앞으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화합을 이뤄 한우산업 안정화를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한우자조금은 이임 및 출범식이 끝난 후 한우산업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원로와 전·현직 임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한우 소비 활성화 및 가격안정 자문 간담회’를 열고, 한우산업 현안과 한우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2023년 **한우산업의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고견을 묻다



이동활 관리위원장

**“첫째·둘째·셋째도
소값 안정화에 최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한우농가의 높은 관심 속에 취임한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그는 부드럽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는데.

“나도 농가이기 때문에 최근 농가들의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소값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만큼 위원장을 맡은 기쁨보다 어깨가 무겁다. 불황이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우자조금에 대한 농가분들의 기대가 높다는 걸 알고 있다. 위원장은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 앞으로 자조금 운영 및 사업계획이 궁금하다.

“모든 사업 역량을 소값 안정에 집중할 것이다. 우

선 단체급식, 가공품 등에 납품되는 수입육을 한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대가 변화한 만큼 온라인 중심으로 한우를 홍보 및 판매할 계획이다. 또 현지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한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우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의 소비촉진 활동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우의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한우농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을 맡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아직 보여준 것도 없이 말로만 그럴 듯하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농가의 피와 땀으로 조성한 자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현장의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농가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한우인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우산업 안정화를 견인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대중 부위원장

“산지가격 연동되는 거점 판매점 건립 필요”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소매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어 소비자들이 한우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면 소매가격도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대중 부위원장은 “현재 한우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육점을 가보면 한우 거세우 1등급 등심이 100g에 1만4천원에서 1만5천원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우자조금 재원을 이용해 한우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춰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것보

다 한우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거점 판매점을 건립해 소비자가격을 선도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가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암소 사육두수가 줄어들어야 생산두수와 도축두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암소 감축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부위원장

“농가소득 향상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현재 한우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사료비는 크게 올라 농장 경영 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농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사양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정일 부위원장은 “최고급육일수록 가격 하락 폭이 작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고급육 생산을 통한 소득 증대이며, 이를 위해선 교육이 필수”라며 “지난 2년 동안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

탕으로 한우농가가 원하는 강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등급 한우에 대한 가격 하락폭이 큰 만큼 한우자조금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2~3등급 한우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행사를 추진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철 대의원회 의장

“한우산업 안정화 위해 발 댄도록 땀 것”



“대내외적으로 한우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특히 농가와 수시로 소통해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우자조금이 채워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우자조금 제5기 후반기 대의원회 의장으로 연임된 정인철 의장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해 한우농가들의 피와 땀으로 거출된 자조금을 농가와 한우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최근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우자조금 재원으로만 진행되는 소비촉진 행사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한우자조금 재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 시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우자조금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정 의장은 현재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도 함께 맡고 있어 바쁜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든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민호 대의원회 부의장

“고부가가치 올릴 수 있는 방법 제시해 줄 것”



“최근 생산비 증가,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가에서 소를 출하하면 적자를 보거나 상황이 좋아야 겨우 본전치기하는 수준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민민호 부의장은 “소 한 마리 출하 시 700~800만 원을 받는 농가가 있는 반면 1천만원, 심지어 1천5백만 원을 상회하여 받는 농가도 있다”며 “한 농가에서 같은 사양관리로 사육했다 하더라도 소마다 경락가격이 차이가 나는 만큼 소 경락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가 자조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 부의장은 “사양관리면 사양관리, 개량이면 개량 등 농가에서 도체종과 육질등급이 우수한 한우를 생산해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임기 동안 한우농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부의장은 한우 도매가격과 산지가격이 즉각 연동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종덕 감사

“경산우 비육에 더 많이 지원돼야”



“한우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소비촉진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암소 감축이라고 생각한다.”

강종덕 감사는 한우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소비자들의 주식, 아파트 값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있어 수요에 맞는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 감사는 “현재 한우업계에서는 미경산우 위주로 암소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미경산우 도축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암소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산우 도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면서 “미경산우는 사양관리 기술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산우, 특히 노산우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출하 시 농가의 손해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경산우가 도축되어 수급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의 소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우 맛체험 행사도 확대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식 감사

“언론 매체 통한 홍보 강화에 주력할 것”



“한우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충식 감사는 “최근 지역 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직원들로부터 언론 매체에서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을 때 한우소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한우 할인판매 행사가 매월 계획돼 있는 만큼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감사는 또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우자조금 재원을 과감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가 거출한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값 형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개최

‘봄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운영 · ‘암소 할인판매 행사’ 추진



전국 8개 한우 브랜드 참여…최대 35% 할인
3~4월에도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가 계속됐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봄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운영하고, 한우고기를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이번 행사는 녹색한우(전남), 흥천늘푸름한우(강원), 안동비프(경북), 울산축협한우(울산), 장수한우(전북), 토바우(충남), 한우지예(경남), 농협안심한우 등 전국 총 8개 브랜드가 참여해 1⁺등급부터 1등급까지의 한우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용과 불고기·국거리를 최대 35% 할인 판매했다.

품질 좋고 맛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비자의 호평이 쏟아진 가운데,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우 암소 소비 확대 위해 최대 40% 할인

한우자조금은 한우 암소 소비 확대를 위해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한우 암소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전국 500여 개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참여했으며, 이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는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약 170개 매장이 참여해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1⁺등급부터 2등급까지의 한우 암소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용과 불고기·국거리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한우유명한곳’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캐치프레이즈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우 육포가 경품으로 증정됐다.

한우 할인행사 지속 통해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한우자조금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온라인 한우장터를, 5월 4일부터 17일까지는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한우농가·유통업체·소비자,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위해 ‘맞손’

한우가격 전년 대비 16.5%↓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 그쳐
투명한 유통 체계 구축 약속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은 지난 3월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생협약식’〈사진〉을 개최했다.

올해 1월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5천904원으로 전년 동기(1만9천31원) 대비 16.5% 하락한 가운데, 소비자가격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에 그쳐 소비자는 한우 구매 시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한우농

가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협약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농협경제지주 박철진 상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허영재 부회장, 이마트 김동민 상무, 홈플러스 임경래 본부장, 롯데마트 윤병수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유통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과 소통을 약속하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합리적인 한우고기 소비문화 정착 확대 △생산자 및 소비자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한 협조 △한우고기 소비촉진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홍보 활동 확대 등에 적극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저렴한 가격 판매업체 홍보 통해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업체·소비자 간 중계 역할 위한 플랫폼 운영

한우자조금이 한우 도축두수 증가에 따른 적체물량을 해소하고, 소규모 업체의 판로 확보를 통한 한우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온라인 한우할인판매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플랫폼 운영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한우

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온라인 한우할인판매 안내 플랫폼은 온라인 한우장터 행사기간을 제외하고, 한우자조금 온라인 한우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진행된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체부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업체와 소비자 간의 중계 역할 수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온라인 한우할인판매 안내 플랫폼 참여업체를 4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 한우자조금 TV광고 촬영 현장

지속적인 신규 소비 창출 위해 다양한 부위 알려
소비자 공감대 형성 위해 진심 담은 메시지 전달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알려 신규 소비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한우소비를 유도하고자 '2023년 한우자조금 광고 캠페인' 촬영을 진행했다.

4월 중순 온에어를 앞두고 있는 이번 광고는 한우농가의 정성으로 키운 한우의 가치를 담은 '농민 편', 소중한 가족을 위해 수입산이 아닌 한우를 준비한 엄마(아내)의 마음을 담은 '가족 편', 남편 힘내라는 아내의 진심을 담은 '신혼부부 편', 진심으로 감동한 우리 한우의 맛을 담은 '우리의 맛 편' 등으로 제작됐다. 특히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우는 진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감성적인 화면과 감각적인 카피로 담아냈다. 또 선호부위(등심, 안심 등)뿐만 아니라 저지방 부위도 어필하면서 한우 수요 증대를 위한 수입산과의 차별적 가치를 담았다.

이번 TV광고는 한우자조금 공식 유튜브 채널과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우고기 유통동향

※ '21년 7월부터 매월 2회 일부 패널(식육포장처리업체 10개소, 대형마트 5개소, 식육판매장 30개소, 일반음식점 20개소)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 자료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량

(단위 : kg/%)

구분		2022년 3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합계	합계	구이류	정육류	갈비	합계		
식육포장 처리업	판매량	684,357	1,023,750	423,333	565,648	261,723	1,070,704	+6.1	+4.6
대형마트	판매량	61,949	108,577	16,590	68,896	—	85,486	+38.0	-21.3
식육 판매장	판매량	10,663	8,647	2,222	4,340	2,152	8,714	-18.3	+0.8
	매입량	2,857	4,659	1,202	2,338	1,086	4,626	+61.9	-0.7
일반 음식점	판매량	2,313	3,445	2,344	405	126	2,875	+24.3	-16.5

* 구이류 : 등심, 안심, 채끝, 특수부위 등

* 정육류 : 우둔, 앞다리, 양지, 사태 등

■ 재고량

(단위 : kg, %)

식육포장 처리업	2022년 3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합계	합계	안심	등심	채끝	갈비	정육류	합계		
재고량	175,158	172,080	14,482	30,642	13,361	29,100	114,524	202,109	+15.4	+4.3

*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재고량만 파악한 수치임

■ 유통가격

(단위 : 원/100g)

구분	구이류			정육류			갈비
	안심	등심	채끝	앞다리, 설도, 우둔	양지	목심	
식육포장 처리업	6,930	5,660	6,340	2,510	3,420	2,190	1,690
대형마트	10,041	7,994	—	3,125	5,858	—	—
식육판매장	—	11,700	—	4,600	4,860	—	5,580
일반음식점	—	17,275	—	12,833	14,285	—	25,000

* 거세 1등급 기준

■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누계
냉장	119,379	103,030	8,618	8,757	24,330
냉동	333,433	373,724	26,500	34,874	90,069
합계	452,812	476,753	35,118	43,631	114,399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 수급시황

중장기 도축 마릿수 2024년까지 증가 전망

■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3월	2월	3월
도축두수(두)		762,746	794,234	871,577	59,328	62,650	65,610	73,321
경매두수(두)		410,849	429,890	533,494	31,205	37,381	37,580	45,804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7,772	21,169	19,018	20,404	19,607	16,270	16,108
	거세	21,241	22,667	20,980	21,961	21,352	18,348	18,197
	비거세	13,386	13,939	12,433	13,526	12,876	9,389	9,319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6,103	6,455	5,559	6,263	5,701	4,487	4,702
	송아지	암	3,415	3,629	3,594	2,735	2,042	2,182
		수	4,268	4,550	4,328	3,683	2,786	3,195
소매가격 (1등급/kg)	등심	97,830	102,980	105,530	101,480	109,690	94,370	91,590
	양지	60,140	62,980	59,900	62,240	61,400	57,250	54,070
	설도	47,330	49,500	45,430	48,410	46,650	43,060	40,550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 수소(거세 포함) 출하대기 두수

구분	2월		3월
	출하대기 두수	실제출하 두수	출하대기 두수
두수(도축비율)	165,882	32,507(19.6%)	158,593

* 출하대기두수 : 전월 기준 27개월령 이상 수소

* 실제출하두수 : 전월 출하대기두수와 해당월 28개월령 이상 수소 두수의 차이

■ 사육두수 및 농장수

구분	전체 한우마릿수	전체 암소마릿수	가임암소수	전체 한우농장수
두수	3,433,349	2,196,640	1,654,888	86,861

* 가임암소 두수 : 15개월령 이상의 암소

■ 한우 도축 마릿수 전망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으로 2023년 한우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9% 증가 전망

- 2023년 1분기 : 22만3천 마리(전년 대비 9.2% 증가)
- 2023년 2분기 이후 : 22~26만 마리(전년 대비 4~12% 증가)

→ 도축 가능 개체수 및 가격 하락으로 암소 도축 늘어 도축 마릿수 증가 전망

→ 암소비육지원사업에 따라 도축 물량 변경 가능성

(단위 : 천마리,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3년(A)		222.8	220.6	259.6	240.1	943.1
2022년(B)		204.0	200.2	232.9	232.0	869.1
과거 불황기	2011	141.6	166.8	213.9	196.0	718.3
	2012	210.8	177.4	250.8	203.9	842.9
	2013	243.3	211.0	262.1	243.4	959.8
증감률(A/B)		9.2	10.2	11.5	3.5	8.5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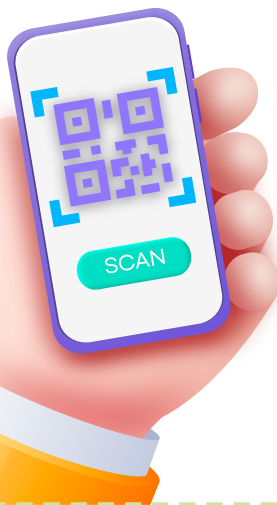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우리 한우



카드뉴스 보러 바로가기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카드뉴스가 게
재돼 있는 한우자조
금 웹진으로 이동합
니다.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대비할 방법은? 🍖



-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 해외 육우관련 정책 사례
- 대응 정책 방안 제시
- 축산정책에 대한 농가조사
- 시사점



풀사료 구매 시 주의사항 🗑️



- 수분함량과 사료효율성
- 수분 측정 방법
- 잘 만든 사일리지란?
- 구매 시 주의사항



축산환경규제가 한우산업에도움이 될까? 💰



- 축산환경규제의 영향
- 환경편익과 생산액



한우자조금 소식지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소식지 주소를 스마트폰
또는 PC주소창에 입력
hanwoonews.com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 촬영하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 검색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소식지 배너 클릭
www.hanwooboard.or.kr

독자 Review

〈한우자조금〉에 보내주신 독자의 소리

[기획]

송○철 (충북 음성군)

최근 한우농가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이변,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급물량은 증가하고, 한우소비는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하여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우자조금에서 기획기사를 통해 거세우 고단가 비절에 대해 짚어줘 농장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한우농가를 위해 애쓰는 자조금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우리 한우]

박○환 (전북 김제시)

필요한 정보만 꼭꼭 눌러담아놓은 한우자조금 소식지네요. 자조금 소식지만 정독해도 한우생리및 사양관리에 대해 알수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우리한우는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볼수있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꿀팁만 적어놓아서 내농장 내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좋을것 같아요. 지금 하고있는 농장운영 방법에 안주하지 않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도 카드뉴스및 한우자조금 소식지 정보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획 / 한우자조금이 만난 사람]

김○수 (울산광역시 중구)

윤충근 박사님 그리고 이정익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글을 읽고 또 읽고 확실히 시힘 공부하듯 오랜만에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특히 경매인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은 소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러한 소를 생산하는 핵심 포인트를 일타강사처럼 짚어주시니 개인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습득된 조각 조각의 지식들이 정리되지 않았었는데 두 분의 글을 읽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아울러 항상 고생하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

〈한우자조금〉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의 리뷰를 남겨 주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웹진에 접속해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우 선물세트 / 1명



한우 육포(50g) 10개 / 1명



한우 육포(15g) 10개 / 3명



농산물상품권(2만원) / 3명

응모기간 : 2023년 5월 5일(금) 까지

당첨자발표 : 2023년 5월호 소식지에 발표합니다.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월간한우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한우 선물세트

송○철 (7423)

한우 육포(50g)

박○환 (4720)

한우 육포(15g)

김○수 (8382)

최○진 (-)

김○은 (7623)

농산물상품권

정○림 (1957)

전○주 (9416)

이○욱 (27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른쪽 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채널 추가'를 눌러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소식지'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안심, 등심보다 귀한진심, 한우

안심, 등심
다른 소고기에도 있지만
한우에만 있는
귀한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정성으로 키운
한우의 진심을 느껴보세요

진심을 담다 **한우**
KOREAN
B E E F
HANWOO

